



“14.5” 시기 송산후과학성 전면 가동

✓ 최근 대만구(大灣區) 종합국가과학센터 (송산후(松山湖)과학성)이 본격 가동되고, 웨강아오(粵港澳)대만구 국제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을 더 높은 단계에서 추진 (4.22)

- 국가 최고 과학기술상 수상자, 중국 고온 초전도 전문가 자오중셴(趙忠賢) 원사 등 18명이 송산후과학성 자문 전문가로 초빙
-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원천 혁신지역으로 건설
 - 2020년 7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, 과기부에서 둥관(東莞)송산후과학성과 선전광명(深圳光明)과학성이 대만구 종합국가과학센터 선행 가동 지역으로 승인
 - 이는 상하이 장강(張江)종합국가과학센터, 허페이(合肥) 종합국가과학센터, 베이징 화이러우(懷柔)종합국가과학센터에 이어 4번째 종합국가과학센터임
 - 대만구대학교(송산후 캠퍼스)는 물질과학, 선진 공전, 생명과학, 차세대 정보기술, 이학, 금융 등 6개 분야에서 인재 육성 및 과학 연구를 진행하고, 2023년부터 운영
 - 과학연구 기초, 도시 건설, 민생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총 1172억 위안을 투자('14.5'기간 1000억 위안 이상 투자)
- '최강 브레인' 일류의 지능 지원을 제공
 - 송산후재료실험실의 연구 성과는 2019년 중국 과학 10대 진전, 2020년 중국 10대 기술 진전에 선정되었고, 국산 부품에 기반한 첨단 레이저 코팅설비 개발에 성공
 - 중국 파쇄중성자소스(CSNS)건설을 가속화하고, 국가급 중대 과학기술 인프라가 착수하도록 노력
 - 송산후재료실험실, 화웨이 스포츠건강과학실험실 등 중점 연구 플랫폼을 고 수준으로 건설
 - 송산후는 현재 99,000명의 인재를 집결, 겸임원사 16명을 초빙하고, 33명의 원사는 프로젝트 협력 등 방식으로 개발구에서 과학연구 업무를 진행하며, 국가급 인재 68명을 보유

참고자료

- 松山湖科学城全面启动

https://mp.weixin.qq.com/s/3HSKZKNgLv01OWG6yeq_g